

경제 안정·생활 보호에 중점...노인연금 논의도 시작



고령화 시대와 노인 헬스케어

③ 대만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복지

노인인구 급속 증가 12.9% 303만명

고령화 진입 속도 한국보다 1년 빨라

작년 2차 종합대책 노인복지 재점검

저소득층·70세 이상 치료비 전액 지원



한국의 보건복지부 격인 대만 위생복지부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타이완)도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그에 따른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많은 점이 닮았다.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복지제도로 우리와 비슷하게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시대를 맞고 있는 대만의 노인복지에 대한 준비는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새로운 노인보호복지제도를 내놓는 등 노인들의 경제, 일자리,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사상 최초로 여성 총통에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도 고령화 문제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만 위생복지부를 방문해 고령화 현황과 노인복지 시스템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만 2018년 고령사회 진입=대만 위생복지부에 따르면 대만 전체 인구 235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2.9%(303만명)에 달한다. 대만 정부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만의 고령사회 진입은 한국과 비슷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은 한국(2026년)보다 1년 빠른 만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정부가 지난해 펴낸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1993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7%(149만명)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2014년에는 전체 인구의 11.99%(280만9000여명)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6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1%에 달하고, 전체인구의 17.7%가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 정부도 이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노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차 노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만 고령사회백서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경제 및 가족구조의 빠른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도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대만의 한 노인이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변천, 인구출산을 하강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다.

대만의 사회복지 전반을 관장하는 위생복지부 사회·가정서 후이 지안 치엔(Hui Jiuan Chien) 서장은 “대만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하는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만도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복지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복지 바탕한 연금제도 개선 논의=대만의 노인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보호, 세 번째는 생활 속의 보호다.

후이 지안 치엔 서장은 “대만 정부는 9년 전부터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문제점들이 나타나 지난해 정부에서 2차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며 “2차 정책에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일자리 문

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 문제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이다. 위생복지부는 전체 303만명의 노인 인구 중 16.35%가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중소득층에게는 절반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70세 이상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지원계층이 되면 전액을 부담한다. 지난 2014년 기준 7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독거노인들을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요원들이 이들을 파악하고,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 등 기관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24시간 응급서비스를 위해 실종노인 예방을 위한 가족통합센터도 설립·운영 중이다.

퇴직 노인들의 재취업 문제도 대만 정부의 관심사다. 최근 사회자진공작부에서는 노인들이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부문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있다. 월급이 아닌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정도로, 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물관 문화해설사, 학교나 병원의 청소 봉사자 등이다.

최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만에서는 노인연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만은 8년 전 연금 제도가 시작됐다. 도입 초기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고, 현재는 노동·보전 계통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계층별 대상자의 연금 지급액이 달라 문제가 되면서 정책들을 손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만 입소할 수 있는 시설 1500곳...독거노인 방문 관리 고독사 방지”

대만 위생복지부 후이 지안 치엔 서장

-대만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예산 규모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23.31%를 차지한다. 금액은 4600억 달러(한화 16조6750억원)다. 이중 노인복지 예산은 11억 달러(40%억원) 수준이다.

-대만 노인 복지 정책의 큰 방향은.

▲대만 정부는 고령화와 함께 발생하는 노인 학대 등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상 문제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대만

은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려고 하고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다.

▲시발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다. 대만은 1980년부터 노인에 관한 장기보호,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9년 전에는 체계화된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해는 종합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고령 인구에 대한 장기보호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가 우선한다. 저소득층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생활비 지원이나 거주시설 입소,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어려운 노인들을 대

상으로 하는 생활시설은 주간 보호센터와 거주시설로 나뉜다. 전국에는 1500여곳의 시설이 있다. 10% 정도가 정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저소득층만 입소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시설은 10% 정도다.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이다.

-노년 노인들의 재취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대만의 정년 퇴직은 65세다. 사회자진공작부가 퇴직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사회 참여에 강점을 두는 제도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대만 노동부에서 노인의 종합적인 일자리·취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고독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노인들은 4만7000여명(1.62%)으로 대부분 독거노인이다.

-정부 차원의 확립화된 정책의 문제는 없나.

▲대만 정부도 확립된 정책에 따른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다.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대만에는 23개의 시가 있다. 모든 도시가 중앙 정부서 진행되는 노인 정책을 펴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고령우선도시(노인특화도시)를 지정해 특화 정책을 펴기도 한다. /김경민기자 kki@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39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경매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총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5억
학동 / 신축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항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홀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가 / 3기 6구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 주 성